

# 食糧사정...오늘과 來日

## 세미나 특집

「當面 食糧政策에 관한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 중 食品工業과 관련이 깊은 부분만을 全經聯의 협조를 얻어 간추려 본다. (編輯者 註)

### 食糧問題와 韓國經濟

金 文 植

<서울農大>

#### 머 리 말

食糧은 國民生活을 위해서 必需財中에서도 가장 으뜸가는 必需財이다.

順理的으로 食糧解決이라는 문제 自體만을 볼 때는 國內的으로 이를 增産하여 自給하는 것이나 또는 그 增産을 위해 必要的인 投資額을 工産品의 增産에 轉用하고 그로써 얻어진 工産品을 輸出함으로써 食糧을 도입하는 거나 다를 것이 없을 것 같다.

즉 우리가 非農産財貨를 外國에 輸出하여 稼得한 外貨로써 食糧을 도입하고 있는 오늘의 우리의 實情이 世界經濟의 分業이라는 觀點에서 볼 때는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즉 世界的인 凶作에 의하여 또는 國際的인 緊張에 의해서 우리 國民生活에 必要的인 食糧을 外國으로부터 도입할 수 없는 경우를

생각한다면 食糧만큼은 自給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必然性을 切感하게 된다.

한편 우리는 農業國家로서의 오랜 歷史를 갖으면서도 왜 食糧을 自給하지 못하고 外國에서 도입해야, 하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農業國家로서의 긴 歷史에도 불구하고 李朝創建 이후 國民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自給狀態를 이룩한 적은 없지 않았나 본다.

우리는 日帝治下에서 年間 8백 70여만섬의 쌀 輸出實績을 올렸던 사실을 想起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食糧이 自給되었던 것은 아니다.

日帝末葉에 있어서 南北韓을 합쳐 年間 쌀生産量은 1천 7백만섬이었고, 輸出量 8백 70만섬을 빼 나머지는 약 8백 30만섬으로서 이 때의 人口는 약 2천만명이었으니까 一人當 消費量은 不

過 4斗에 지나지 않았다.

이 4斗를 kg으로 換算하면 약 57kg이 되며 그 때의 우리 國民은 먹고 남아서 수출한 것이 아니라 모자란 상태에서 이른바 飢餓輸出하였고 食糧不足은 外國에서 들여온 雜穀으로써 메꾸어야 하였으니 食糧이 自給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바꿔말하면 지난날 우리나라는 農業國家로써 成長해왔지만 食糧 한가지만도 제대로 생산못해온 것이 사실이다.

물론 그 한가지 사실만 가지고서 農業의 役割을 過少評價할 수 없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農業은 國民食糧을 生産하는 것 외에도 여러가지 役割을 맡고 있는 때문이다.

#### 農業의 役割

첫째 製造業部門의 必要原料를 生産供給하는 것을 비롯하여, 둘째 非農業部門이 生産하는 財貨와 用役에 대한 需要를 創出해왔고, 셋째 工業化 過程에서 必要的인 勞動力을 供給해 왔으며, 넷째 農産物 輸出에 의한 外貨稼得을 통한 國民經濟成長에 寄與

하였고, 다섯째 農業自體의 成長을 통해 國民經濟의 高度成長에 기여하는 등 農業部門이 담당해 온 役割은 자못 큰 바 있었다.

다만 그 役割이 國民經濟의 成長過程에서 그 要求에 제대로 부응할 수 있을 만큼 充分지는 못하였다는 것 뿐이다.

그같은 여러가지 役割중에서도 食糧自給의 達成이라는 가장 基本的인 役割을 제대로 다하지 못한데에 문제가 있다.

이에 관한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한마디로 表現한다면 우리나라 農業은 그 긴 歷史에도 불구하고 이 部門에 종사하는 農民의 勞動生産성이 向上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못했었다는 데에서 찾아 볼 수 있을것 같다.

즉, 全體人口중에서 農家人口가 차지하는 比重이 1974年 現在 44%인데 그 人口가 나머지 56%에 상당하는 非農家人口를 扶養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바꾸어 말하여 農家人口 한 사람이 非農家人口 약 1人을 扶養하는데 지나지 않을 정도로 農業部門 취업자 1人當의 生産성은 낮다.

美國의 農業技術은 우리와 비교가 안될만큼 發達해 있기는 하지만 이나라 農家人口 한사람은 非農家人口 9人을 扶養하고도 남는 餘分의 食糧을 生産하고 있어 이를 外國에 輸出할 수 있을 정도로 美國의 農業部門 就業者 1人當 生産성은 높다.

美國에 비하여 우리나라에는 農村人口가 過多한데다가 農業資本裝備率이 낮아 食糧을 自給할 수 있을만큼 勞動生産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農業生産의 機械化를 비롯한 土地를 改良, 大動植物의 增殖 등 資本裝備率을 높혀 나가야 하겠다.

現在 農村에서 즐기고 있는 靑壯

年層人口와 農業生産性과는 積極的인 相關關係를 맺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農地에 대한 人口의 壓力이 커 潛在失業人口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實情으로서 이들의 非農業部門으로의 進出은 必然的인 現象일 것이다.

아무래도 農村의 潛在失業을 解消시키는 길이란 非農業部門에서 要求하는 特定的 技術을 習得하였거나 知識을 갖춘 靑壯年層이 아니고서는 轉出할만한 能力者가 없는 때문이다.

다만 이에 代替할 農業生産의 機械化가 短時日內에 普及되어지는 어려울런지 모르나 漸次 그러한 方向으로 資本裝備率의 高度化를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 將來 食糧需要

앞으로의 年間 人口增加率을 1.6% 내지 20%, 1人當 所得增加率을 9.15%로 그리고 穀類에 대한 需要의 所得彈力係數를 0.3으로 잡는다면 年間 食糧에 대한 需要增加率은 4.34% 내지 4.75%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第4次 經濟開發 5個年 計劃期間中에 食糧用 糧穀 需要를 充足시키기 위하여서는 食糧은 적어도 年間 4.34%내지 4.75%의 成長率로서 增加해야만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農業

部門에서 非農業部門이 必要로 하는 原料를 비롯한 諸農産物을 生産 供給해야 한다고 본다면 農業成長率은 그보다 더 커야할 것으로 推算된다.

한편 앞으로 人口가 증가하고 一人當 國民所得이 증가함에 따라서 食品別 消費패턴이 크게 變化를 이트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營養學的 側面에서 食品消費樣態는 熱量 爲主로부터 단백질, 지방질 爲主로의 급격한 變化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제 4차 經濟開發 5個年 計劃이 끝나는 1981年度에 가서 단백질에 있어서는 1962년에 비하여 도시의 경우 1.7배, 農村의 경우 1.3배로 늘어날 것이 예상되고 있고, 지방질에 있어서는 도시의 경우 2.27배, 農村이 1.6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의 農業生産資源 利用面에서 肉類, 卵類에 대한 增産이 可能해질 수 있는 方向으로의 活用을 암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고기류와 卵類, 牛乳類를 생산해내는 畜産業은 飼料와 價格條件面에서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으며 특히 飼料의 主宗인 옥수수의 國際時勢의 上昇은 그 도입량의 제한을 불가피하게 하였고 農民의 입장에서는 飼料品貴와 價格上昇으로 인한 收益率低下現象을 가져왔었다.

## 食糧資源으로서의 畜産開發

金 煥 卿

<高麗大教授>

### 韓國畜産業의 位置

#### (1) 畜産業의 不振要因

西歐諸國과 우리나라는 畜産業 發達의 背景을 달리하고 있다. 西歐의 農業은 遊牧과 畜産에서

부터 出發하였으며 廣大한 土地와 收野地 飼料資源等 畜産發展의 與件과 市場條件이 좋은데 起因되고 우리나라는 이와는 相稱한 環境條件에 있었기 때문이다. 즉,

① 耕地가 狹少하고 農業經營規模가 零細하여 米麥中心農業이 면서도 食糧自給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飼料資源도 缺乏되고 있고,

② 農民의 資本蓄積이 缺乏되어 畜産部門에의 投資가 困難한으로써 施設과 改良技術이 導入되지 못하였고,

③ 自給飼料生産이 不振하여 高價인 購入飼料依存度가 너무 높으며,

④ 國土의 70%에 달하는 山林其他 遊休地의 利用度가 不良하였고

⑤ 國民所得水準의 低位로 畜産物의 消費가 적었으며

⑥ 畜産物價格이 不安定한 點等이 그 原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近年에는 農業生産構造가 米麥中心에서 畜産, 果樹, 特用作物等 商業的 營農으로 變貌되어 가고 있다. 즉, 國民總生産에서 耕種農業生産의 占有率이 점차로 減少되고 相對的으로 畜産業이 增加趨勢를 나타내고 있다.

(2) 韓國農業에 있어서 畜産業의 位置

劣位에 머물러 있던 畜産業이 政府의 食糧需給에 參與하게 된 것은 1974年 農水産部에서 發表한 「10大重點 施策」中 「廣意의 食糧으로써의 畜産振興」이란 項目의 提示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畜産業이 農業生産에 占有하는 比重을 보면 1961년에는 5.4%였던 것이 1971년에는 12.2%로 向上되었으며 이것을 1961年을 基準年度로 比較

해보면 農産物은 398%인데 比較하여 畜産物은 889%의 成長을 記錄하고 있다.

한편 畜産物이 食品으로써의 食糧代替效果를 含有營養素基準으로 換算해보면 74년에는 米穀換算 927千톤으로 6,438千石에 이르고 있는데 이것은 同年全國米穀生産量 3,200萬石의 21.1%에 해당하는 量으로써 실로 注目할 만한 事實이다. (表 1) 家畜增殖을 計劃대로 推進할 경우 81년에는 13,625千石이 되는데 米穀生産量을 이 기간에 20% 増産하여 4,000萬石으로 假定하여도 畜産物의 比重은 그 34%란 莫大한 量이 된다.

이와같은 目標가 達成되는 경우 우리나라 食糧生産은 81년에는 米穀 4,000萬石 畜産物 1,350萬石 計 5,350萬石이 되며 食糧自給은 물론 剩餘分의 畜産物輸出도 可能하게 될 것이다.

4次 5年計劃이 끝나는 81년에는 國民所得 1,000弗과 함께 우리 國民의 食生活은 變貌될 것이며 또한 畜産業의 地位도 農業分野中 가장 上位에 到達하게 될 것으로 展望된다.

家畜增殖과 畜産物生産

지난 5年間의 家畜飼育動態를 보면 74年末 頭數는 70年對比 韓牛 140%, 肉牛 250%, 乳牛 321%, 豚 162%로 各各 增加하였는데 닭만은 80%로 減少되었다. 이것은 73年의 養鷄業不況에 起因된다. 이중 繁殖이 어려운 韓牛가 74年 1年間에 292千頭나 增殖되어 1,778千頭를 記錄한 것은 높이 評價된다.

한편 畜産物生産은 牛乳가 74年末 126.9千톤으로 245% 成長하였고 牛肉이 51.5千톤으로 138% 其他는 112~117% 増産되었다. (表 2)

<表 1> 畜産物需給과 食糧代替效果

區 分		74	75	78	81	81/75
1 人 當 需 要	肉 類(kg)	5.8	6.3	9.4	12.6	200.0
	卵 類(個)	83	88	135	177	201.1
	牛 乳(kg)	3.6	4.5	8.2	13.4	297.7
總 需 要	牛 類(%)	197.5	217.4	329.2	449.9	206.9
	卵 類(百萬個)	2,755	2,977	4,767	6,497	218.2
	牛 乳(%)	126.9	156.9	291.5	490.7	312.6
食代 糧替	米穀換算(千%)	927	1,026	1,418	1,962	191.2
	(千石)	6,438	7,125	9,847	13,625	191.2

資料: 農水産部

<表 2> 年度別畜産物生産實績

單位: 鷄卵, 百萬個  
其他, 千%

區 分	70(A)	71	72	73	74(B)	B A(%)
牛 肉	37.3	39.4	40.2	44.9	51.5	138
豚 肉	82.5	80.8	90.2	90.1	95.3	115
鷄 肉	45.2	50.0	54.2	51.8	53.2	117
鷄 卵	2,456	2,536	2,790	2,500	2,755	112
牛 乳	51.8	65.3	79.8	104.1	126.9	245

資料: 農水産部

<表 3>

飼料用原料導入実績

單位：數量，千%  
金額，千弗

區 分	70	71	72	73	74
魚 粉	259	390	426	498	444
大豆	19	23	16	1	—
大豆 粕	—	36	39	39	19
其他	29	18	12	8	—
其 他	2	4	3	4	2
計 數 量	309	471	496	550	465
金 額	26,678	38,861	36,783	68,100	75,641

資料：農水産部

<表 4>

畜産物輸出実績(金額)

單位：千\$

區 分	70	71	72	73	74
豚 肉	55	40	5,658	3,118	8,859
緬 羊 肉	—	—	1,869	3,848	7,764
豚 毛	901	653	781	1,014	590
鷄 卵(UN軍納)	1,140	467	855	773	867
其 他	1,130	886	2,973	1,941	3,124
計	3,226	2,046	12,136	10,694	21,204

資料：農水産部

<表 5>

畜産物輸入実績(金額)

單位：千\$

區 分	70	71	72	73	74
生 動 物	2,184	2,426	2,885	6,031	5,590
緬 羊 毛	12,224	6,631	22,232	44,361	32,677
牛 脂	6,783	7,840	8,071	13,658	25,349
牛 原 皮	3,477	3,613	10,381	20,966	29,685
其 他	2,716	1,708	4,806	2,076	10,531
計	27,384	22,218	48,375	87,092	103,832

資料：農水産部

飼料生産 現況

1974年 配合飼料는 927千톤을 生産供給하였고 飼料原料導入実績은 465千톤 7,564萬弗이나 되는데 그 大部分이 옥수수이다. 70년에는 73년까지 옥수수를 비롯 大豆 魚粉 等 2,600~6,800萬弗 상당량을 導入하였다. (表3)

한편 草地造成實績을 보면, 1967年에서 1974年까지 8年間に 겨우 6萬ha이며 그간의 投資額은 1,843百萬원이다. 그 財源別 內譯을 보면 國庫補助 50% 融資 38.7%, 地方費 12%, 自擔 18.9%되려 어있다.

畜産物輸出入実績

畜産物輸出은 物量面에서 微微한 段階에 있으나 74년에는 豚肉 緬羊肉 等 21,204千弗의 實績을 올렸다.

이와같이 輸出이 不振한 것은 畜産物 生産이 國內需要에 充當할 뿐이기 때문이다. (表4)

한편 畜産物輸入實績을 보면 羊毛를 위시하여 牛指, 原皮 等 74년에는 1億弗以上에 達한다.

前述한 緬羊牧場造成問題도 적극 推進해야 할 것이 要된다. (表5)

을 造成하여 준다.

食品의 需要增加를 促進하는 要因으로서는 所得의 向上, 人口의 增加와 都市化 그리고 食生活 意識의 向上등을 들 수 있으며 特히 經濟成長에 따른 所得水準의 向上은 生計費中에서 차지하는 食生活費의 比重을 나타내는 英係數의 低下를 가져오는 同時에 食品消費內容面에서 蛋白質 그 中에서도 動物性 蛋白質의 比

食品需要패턴變화와 食品工業

李 丙 昱

<三養食品(株)常務>

食品消費構造의 變動

經濟가 成長하고 社會가 發展

됨에 따라서 食品工業에 影響을 주는 環境이 變化되고 이 變化는 食品工業이 發展할 수 있는 與件

重을 增大시키고 植物性 澱粉質의 消費를 減少케 하는 食品消費, 構造의 高度化와 食品消費品目的 多樣化 現象을 가져오게 한다.

엔겔係數는 元來 人間의 生活이 「먹는다」는 限界的인 營爲에 依하여 어떻게 支配되고 拘束되고 있는지를 表示하기 위한 「生活指標」였다.

換言하면 從來의 生命維持를 爲한 「食生活」과 生命保護를 爲한 「衣·住生活」以外에 人間性 創造의 營爲를 爲한 「娛樂生活」이라는 세가지 生活要素가 均衡 狀態에 到達하는 時代가 來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三者均衡의 狀態는 所得의 向上과 價値觀 또는 欲求의 變化에 따라서 보다 人間다운 生活의 實現을 向해서 將次는 崩壞되어 갈 것으로 보이지만 現在로서는 그와 같은 意味에서 하나의 轉換 期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1) 우리나라의 食品消費構造 變動

우리나라 食品消費패턴을 營養面과 食品類別 供給量에 있어서 的 變動推移를 分析해 보면 供給 絕對量에 있어서의 多食化와 供給 熱量에 있어서의 動物性食品의 比重增大, 그리고 食品類別 消費 構成의 多樣化傾向의 세가지 特徵을 들 수 있다.

FAO韓國協會 및 農水産部가 作成한 1962年~1973년까지의 食 帛需給表를 通하여 年度別 1人 1日當 供給熱量의 食品別 供給構成推移를 살펴보면 最近의 10餘 年동안에 植物性 食品의 大部分을 차지하는 澱粉質 食品인 穀類의 供給實量은 1962年 以後 거의 아무런 變化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그 構成比는 1962年の 92.9%에서 1973년에는 85.5%로 減少하고 있는데 反하여 動物性 食品

은 實熱量面에서 거의 3倍에 가까운 增加를 보여 1962年の 構成比는 3.7%이던것이 1973년에는 6.8%로 增加하고 있어 動物性 食品의 比重增大傾向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1973年の 國民 1人 年當 食品類別 供給量을 1962年과 對比해 보면 우리나라의 傳統的인 食品가운데 中心的인 位置를 차지하던 穀類, 豆類감자類, 果實 野菜類등은 매우 적은 增加를 보이고 있는 反面에 牛乳 및 乳製品類, 雪糖類, 卵類등은 매우 큰 增加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食品類別間의 供給推移는 國民食生活의 高度化와 多樣化를 反映한 食品供給構造의 變化를 나타낸 것이다.

## 食品工業의 開發

### 1. 우리나라食品工業의 發展과 變貌

우리나라의 食品工業이 發展해 온 過程을 時代別로 區分하여 본다면 6.25事變 以前까지의 時代(第1期)와 1950년부터 第1次經濟開發 5個年計劃이 着手된 1962년까지(第2期)와 1963年以後 現在까지(第3期)의 3段階로 區分할 수 있는데 多少의 無理는 있지만 各段階마다 特徵的인 發展象을 엿볼 수 있다.

#### (1) 第1期(素材工業, 1次加工 部門의 發芽期)

1950年以前까지 食品工業의 工業化는 日本에 對한 食品供給을 爲主로 하여 主로 日本人資本에 依해 이루어졌다. 業種으로서는 低廉한 水産物을 原料로한 통조림, 米穀代替食品으로서의 製粉, 그리고 製糖, 釀造등의 程度로서 農水産原料를 處理, 加工하는 것에 不過하였다. 當時의 主要食品

工業의 設立狀況을 살펴보면 製糖業이 1919년부터 近代化된 工場施設을 가지고 小麥粉生産을 始作하였으며 1920년부터는 製糖 工場이, 그리고 1933년에는 麥酒 工場이 各各 設立되었다.

이 當時의 生産體制는 少數의 業種을 除外하고는 勞動集約的인 狀態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技術水準 또한 유지한 狀態였다.

食品에 對한 需要도 日本人의 것이 大部分이었으며 一般需要는 極히 미약하였다. 따라서 近代의인 食品工業을 爲始하여 傳統的인 食品工業이 生産活動을 營爲하고 있었다고 하나 製品生産을 위한 工業生産이라기 보다는 生活必需品調達을 위한 一種의 自家生産의 性格을 더욱 길게 나타내고 있었다.

#### (2) 第2期(洋風化와 加工食品 需要刺戟期)

手工業的 範疇를 벗어나지 못했던 國內食品工業이 그 生産活動이나 製品面에서 近代化하기 始作한것은 6.25事變以後, 變革期를 맞으면서 改善洋風이 들어온 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聯合軍의 進駐와 함께 들어온 歐美의 生活樣式과 無償援助에 의한 外國製品의 流入은 우리나라 固有의 生活樣式에 새 風潮를 불어 일으키게 하며 食生活消費面에서 洋風化가 徐徐히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需要도 차츰 多樣化되었다.

이 結果는 直接, 間接으로 米食中心의 食生活을 떠난 새로운 生活樣式에 對한 可能性을 보여 주는 한편 歐美風 食品에 對한 需要를 刺戟하여 最終消費財, 食品工業部門이 發展할 수 있는 動機를 마련케 해주었다.

이러한 過程에서 食品工業은 製粉, 製糖을 爲始한 一次加工分野의 基盤이 確立되었으며 이 兩大素材工業의 原料를 使用하는 2次加工部門인 製菓, 製醬, 清涼飲料製造業등이 發芽하기 始作하였다.

그러나 기아가 資本과 施設의 零細, 生産技術의 未熟 그리고 限定된 販賣市場등의 要因으로 因하여 製品生産은 急激한 暴大를 보이지 못하였다.

### (3) 第3期(食品工業의 發展과 分野擴大期)

1962년에 第1次經濟開發 5 年計劃이 着手된 以來 經濟의 急激한 發展에 따른 國民生活水準의 向上과 糧穀消費節約施策에 따른 食生活構造가 多樣化하고 새로운 食品의 需要가 增大하고 農漁村所得增大施策의 成功的 遂行으로 農畜水産物의 處理加工分野도 차츰 開發, 擴大되어 食品工業도 보다 向上된 製品을 供給

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1960年代 後半에 이르러 高級化, 多樣화된 國民食生活需要를 充足시키기 爲하여 先進技術을 導入하는 등 各部門에 걸쳐 莫大한 投資가 이루어졌으며 最近에는 企業體制面에서 大型綜合 食品 企業의 出現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結果, 최근에는 햄·소세지를 비롯하여 빠타, 치즈, 아이스크림 등 乳製品과 營養價있는 肉酪製食品, 잼, 비스켓, 초코렛, 커피, 清涼飲料등을 비롯한 여러가지 生活嗜好品과 구루타민소나, 간장등의 調味食品 그리고 라면 등의 인스탄트, 便宜食品에 이르기까지 모든 製品이 程度의 差異는 있으나 現代화된 施設에 依하여 工業製品으로 生産되고 있는 것이다.

### (4) 食品工業의 産業上的 地位

우리나라食品工業의 産業上地位는 附加價値를 基準으로 하여 살펴보면 1955년에 全製造業의

35.0%의 比重을 차지하여 餘他部門인 纖維工業(20.7%), 化學工業(4.8%), 金屬工業(0.2%), 機械工業(5.4%)등을 훨씬 증가하였으나 1960年代中半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工業化政策이 消費財中心의 輸入代替産業에서부터 基礎基幹産業을 中心으로 重點의인 投資와 支援이 이루어져 重化學工業部門이 工業成長의 主導的 部門으로 登場케 됨으로서 食品工業은 纖維工業과 함께 그 比重이 相對的으로 漸次 弱化되는 趨勢를 나타내고 있다. (別表參照)

1973년에 있어서 食品工業의 比重은 16.6%로써 아직도 製造業中에서 首位를 차지하고 있으나 1962년에 比하여는 10.5% 포인트나 下落하였으나 化學, 機械工業部門의 上昇推移와는 正反對의 現狀에 있다.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國內食品工業의 成長推移는 近年에 이르러 多少鈍化되고 있지만 食品工業이, 人間의 食生活에 直結되고 人口의 伸長이 거이 一定하여 急激한 食料品消費의 增加를 招來하지 않는다는 特性을 考慮한다면 매우 팔목할만한 伸長이 있으며 日本 및 其他 先進國의 그것과 比較해도 顯著한 水準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國內食品工業의 地位를 國際比較를 通하여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食品工業의 産業上比重은 아직도 先進諸國에 比하여 相當히 높은 水準에 있다.

食品工業의 産業上地位(附加價値基準)

(1970年度不變價格, %)

	1955	1962	1970	1973	(註)
食 品	35.0	27.1	20.5	16.6	資料는 韓國産業銀行刊 「韓國의 國民所得」(1973)에 依함.
纖 維	20.7	18.1	14.7	15.2	
化 學	4.8	8.5	18.9	16.5	
金 屬	0.2	5.9	3.7	3.8	
機 械	5.4	9.9	10.0	12.7	
其 他	33.9	30.5	31.5	35.2	
合 計	100.0	100.0	100.0	100.0	

살펴보자 낭비없나 다시보자 로스없나